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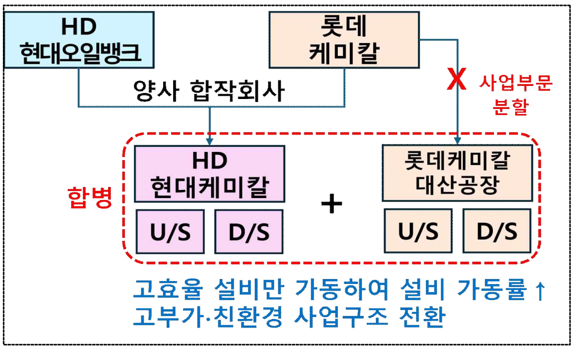
보도시점	2025. 11. 26.(수) 배포즉시	배포	2025. 11. 26.(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단추, 1호 프로젝트 윤곽 드러났다

- 대산산단 사업재편계획 최종안 제출 및 승인 신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여 정부에 제시한 첫 사례이다.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을 분할한 후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회사)과 합병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과잉문제로 지적되어 온 NCC 설비와 범용 석유화학 제품 설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여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HD 현대오일뱅크
롯데 케미칼
양사 합작회사
X 사업부문 분할
합병
HD 현대케미칼
U/S
D/S
+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U/S
D/S
고효율 설비만 가동하여 설비 가동률↑
고부가·친환경 사업구조 전환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방안】

산업부는 그간 기업들의 공동사업재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오늘 제출 받은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부합, 생산성·재무건전성 등의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 시 석화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세제·R&D·원가절감 및 규제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중동·중국의 최신 설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사업재편계획 제출기한(연말)보다 한 달가량 빠른 일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사업재편 적극 참여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다른 프로젝트도 연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재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스페셜티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도 중요한 만큼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을 통해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	책임자	팀 장	김건혁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하원석 (044-203-4933)
			사무관	박충희 (044-203-4932)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최수연 (044-203-4230)
			사무관	박석용 (044-204-42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